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베이커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각종 지수가 크게 개선됐으며 사업체들의 영업제한을 일부를 해제했다

## 매사추세츠 식당 등 사업체 수용인원 40%까지 허용

사업체, "정부의 조치에 담긴 메시지 중요" 환영  
너무 빠른 제한조치 해제, "사람들 느슨해질 것" 우려  
실내 10명, 실외 25명 모임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백신 접종자가 65만명이 넘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4일 각 지자체에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내려졌던 수용인원 25% 제한을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사업체 영업제한 완화는 최근들어 신규확진자가 급속히 감소하는 등 완전한 감염 감소추세에 따른 것이다. 2월 3일 현재 신규확진자는 2,186명, 신규사망자는 53명으로 집계됐다. ▶8면으로 계속

## 경제인협회, 첫 한인사회 PPP설명회 개최

SBA 에이미 김, 주정부 린다 챔피언 강사로  
PPP, EIDL 및 EIDL 어드밴스, 각종 대출 정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옥타(OKTA)경제인협회(회장 장진섭)가 보스톤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첫 한인사회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EIDL 대출 그리고 기타 소규모 사업체들의 금융대출 정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국(SBA)에서 에어리어2(워싱턴 및 메릴랜드 등 중동부 일대) 정부 계약업무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에이미김이 SBA에서 주관하는 PPP, EIDL, 그리고 SBA 보증(Surety Bond)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주 산업재해부처 부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린다 챔피언은 보스톤 시의 스몰비즈니스의 정의와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활용가능한 금융대출 및 그랜트 정보를 공유했다.

PPP 대출은 소규모 사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민주 평화 통일 보스턴 협의회 통일 아카데미 시리즈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 아카데미 3회 강연시리즈를 선보인다. 통일 아카데미 첫 강연은 2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줌(Zoom)으로 개최되며, 북한 전문가 조성렬 박사와 <한반도 평화와 한미 협력의 과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성렬 박사는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이다.

두번째 통일 아카데미는 3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미 동부 시간)에 KAPAC 대표인 최광철 대표를 초청하여 <미주 평화와 공공외교>에 관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광철 대표는 미주 민주평통운영위원이며 KAPAC의 대표로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공공외교를 계속해오고 있는 공공외교 대표 전문가이다.

세번째 통일 아카데미는 4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미 동부 시간)에 Women Cross DMZ 이현정 사무총장의 <비무장 지대 - 국제 평화 지대>라는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2월 20일에 개최되는 조성렬 박사의 첫번째 통일 아카데미 온라인 강연의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강연과 관련된 문서는 한문수부회장(준비위원장): bostonnuac2020@gmail.com

2021 통일 아카데미 1회 조성렬 박사님 강연

### 한반도 평화와 한미협력의 과제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



Topic: 한반도 종전선언 왜 필요한가?  
When: Feb. 20th, 2021, Sat., 08:00PM (EST)  
주최: 보, 한국(안보전략연구원) 임원 및 학계  
강사: 조성렬 박사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9541112703  
Meeting ID: 895 4111 2703  
Passcode: nuac2021

조성렬 박사 약력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서울대 공대 행정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일본 조교대학, 게이오 대학 및 중국 칭화대학 방문학자 역임  
북한연구학회 회장 및 한국국제협력단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한반도 평화체제>, <무한대국: 역사, 정경, 전망> 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에게 할 수 있다.

제목: 한반도 종전선언 왜 필요한가?  
일시: Feb. 20 the 2021 08:00 PM(미 동부시간)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9541112703  
Meeting ID: 895 4111 2703  
Passcode: nuac2021  
bostonkorean@hotmail.com



유기준 보스턴총영사는 지난해 11월 세계한인의날 유공 재외동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경원 전 한인회장을 체스넛힐 소재 총영사관저로 초청, 전수식을 가졌다

## 김경원 전 한인회장 대통령 표창 전수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유기준 보스턴총영사는 지난해 11월 세계한인의날 유공 재외동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경원 전 한인회장을 체스넛힐 소재 총영사관저로 초청, 전수식을 가졌다.

장수인 평통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표창장을 전달받은 김경원 전 한인회장은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다. 한인사회에 감사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오랜기간 태권도 교육재단, 한인회장, 평통위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한인사회에 봉사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앞장 서줄 것" 을 당부했다

수상식후에 관저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대해 의견

을 나누었으며 한선우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장이 배석했다. 한선우 회장은 "헐대믹 상황이라 많이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한인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한다" 며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김경원 전 회장은 미국태권도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미주 최초로 태권도를 공교육으로 정립시켰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2007년 스프링필드와 치코피 등 2개 시에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시켰다. 이후 미국 태권도교육재단을 설립하여 100여개 공립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도입시키는 등 공립학교에 태권도를 보급해왔다.


2010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재외유공동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경제인협회, 첫 한인사회 PPP설명회 개최

▶▶1면에 이어서

업자는 물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Self Employed), 프리랜서 등개인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PP는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에 의거한 2차 PPP대출이다. 지난 3월 케어스법에 의거한 1차대출을 했던 사업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019년 중 한 분기와 2020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 매출손실이 발생한 300인 이하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의 PPP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남아 있는 경우 직원들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경비로 사용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한달 급여비용(payroll)의 2.5배까지이며 최대 2백만불까지 대출된다. 일반회사의 경우 양식 941의 금액을 모두 합해 12로 나누면 한달의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인기업(Sole proprietor), 자영업자(Self Employed),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는 “세금보고양식(1040) 스케줄C의 항목 31번(Net profit)의 금액을 최대 10만불까지 12로 나누면 한달 급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고 에이미 김은 밝혔다.

한편, PPP탕감은 8-24주 내 급여, 유틸리티, 렌트, 이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전액 탕감할 수 있다. 특히 EIDL Advance 그랜트는 더 이상 탕감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 PPP 대출금액으로 지불한 각종 급여 등의 비용도 전액 세금보고시 감면이 가능하다. 15만불 이하의 대출자들은 1페이지의 간편 양식으로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EIDL 대출은 탕감이 안된다. 다만 EIDL 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용제한없이 사업운영과 관련한 모든 곳에 비용을 사용가능하다. EIDL 어드밴스의 경우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번에는 저소득 지역의 사업체로서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기록한 업체에 선택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에이미 김은 “지난해 EIDL 어드밴스를 신청해 받지 못했거나 1만불보다 적은 부분적인 어드밴스 금액을 받은 업체는 SBA에서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SBA는 3일부터 이메일 접촉을 시작했다. 지난해 신청했던 사업체들은 곧 연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반드시 이메일이 SBA.gov으로 끝나는 이메일인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린다 챔피언 매사추세츠 산업재해부 부변호사는 보스톤의 경우 스톨비지니스를 35인 이하 사업장, 연매출이 1백50만불 이하의 영리목적의 사업체로 보스톤 내에 위치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프로그램으로는 MGCC(Mass Growth Capital Corp)의 마이크로론 프로그램, 장비대출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실직한 레스토랑 근로자들의 경우 레스토랑스트롱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MGCC 대출 신청과정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 고 밝혔다. iamlindachampion@gmail.com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기준 총영사가 참여해 경제인협회의 활동을 격려했다. 장진섭 회장은 “한인사회는 보스톤과 매사추세츠의 진정한 정부지원책 또는 스톨비지니스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서로간에 협조하고 도와야

한다” 고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옥타경제인협회는 이번 포럼에 참여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웹사이트(bostonokta.org)에 포럼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올려놓아 누구든지 필요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PP와 EIDL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옥타(bostonOKTA@gmail.com)에 할 수 있다. 옥타는 질문을 취합해 SBA측에 물어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 매스주, 현재 125 백신접종처 2월중순 165개로 확대

1일 현재 총 654,104 분량 접종돼, 매주 평균 10건 예약 받아 대형 접종센터는 매주 목요일 5만5천 이상 신규 예약 접수 레지루이스센터 다음주 접종시작, 내주 12만건 예약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2월 1일 현재까지 총 654,104 분량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매주 백신접종처를 늘려 2월 중순에는 165개처에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사추세츠 백신 접종 대부분이 백인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정부

는 다음주 락스베리 소재 레지루이스센터 대형 접종센터를 개장하고 당분간 락스베리 및 보스톤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월 말에는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 예약을 개방할 것이라고 주정부 측은 3일 덧붙였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외에도 백신 접종처를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시와타운의 CVS 나 월그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에 따르면 월그린은 흑인 밀집지역인 매타펜과 락스베리 2개 장소에서 새로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도체스터, 첼시, 리비어, 에버렛 등의 장소에서도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베이커 주지사는 “다음주 소수민족 밀집 지역내 약 30여개 약국에서 2만1천여 예약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매사추세츠 주내 여러 지역에 각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해 백신접종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주 10만 신규 예약을 받았다. 우리는 매주 이 예약규모를 늘려 나갈 것이며 [mass.gov/covidvaccine](http://mass.gov/covidvaccine)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가 운영하는 대형 접종센터는 질레트스타디움, 펜웨이파크, 댄버스의 더블트리 호텔, 스프링필드 소재 이스트필드 몰, 그리고 이번주 개장하는 락스베리 소재 레지루이스센터이며 추후 2개 센터를 더 개장할 계획이다.

주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 접종센터는 매주 목요일 일제히 그 다음주 접종 예약을 [mass.gov/covidvaccine](http://mass.gov/covidvaccine)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는다. 현재 약 주당 전체 예약의 절반이 넘는 5만5천건 이상의 예약을 매주 목요일 대형 접종센터는 소화한다.



온라인 접수 워크시트	
성명(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셜번호	
건강보험증	
이메일주소	
최근 한달연회 백신 접종을 받으셨습니까?	예 ( )   아니요 ( )

상기와 같이 항목 신청을 완료 하십시오. (서명)

## 한인회, "백신 접종 신청 도와드립니다"

매주 월, 화, 수 한인회관, 올스턴에서 신청 대행 신청 원하는 한인들은 미리 전화로 시간예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서영애)는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온라인 접종이 쉽지 않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신청을 대행한다.

현재 매사추세츠주는 단계별 접종 2단계를 지난 주 시작했으며 75세 이상의 일반 시니어들에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 시니어들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인회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한인회는 우번소재 한인회관, 올스턴 소재 프리미어리얼티 사무실에서 예약을 받아 직접 신청을 돕는다. 한인회관에서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도우며, 올스턴에서는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진행한다.

▶▶5면으로 계속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주최 New Music Symposium Returns "The Inters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ew Music"

2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EST)



HOST: Texu Kim

Guest Speakers

- 2/ 6 쟈 슈이
- 2/ 13 가 민
- 2/ 20 김지영
- 2/ 27 김진희




Meet this group of inspiring musicians who are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ontemporary Western music!

**In Zoom and live-streaming in KCSB Facebook**

Register to join the Zoom @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



Sponsored by: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 뉴잉글랜드 포럼 안성호 교수 '초문화 정체성' 강연

뉴잉글랜드 포럼은 2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 4면에 이어서

백신 신청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화(978-807-1622, 646-220-3314, 813-759-3970, 339-224-1512)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어느 때나 [masskorean2021@gmail.com](mailto:masskorean2021@gmail.com) 이 메일로 예약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온라인 접수 의뢰서를 작성해 한인회에 제시해야 순조롭게 예약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장소: 매사추세츠한인회 (주소: 13 Campbell Street, Wobum, MA 01801)

매주 월, 화, 수요일 10:00 AM ~ 3:00 PM

신청장소: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매주 화, 수요일 10:00 AM ~ 6:00 PM (Nikkei Park 617-447-0591)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 뉴잉글랜드 포럼이 2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고든 신학대에 재직 중인 안성호 교수를 초청,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며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초문화 정체성 강연을 개최한다.

특히 한인 이민자의 가정의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문화를 접하게 살아가며 문화의 충돌로 삶의 갈등을 겪게 된다. 한인 2세 자녀 중 우울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같은 문화적 갈등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 교수는 20여 년간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와 인종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기독교 사역을 해왔다. 강의, 사역과 함께 다양한 세계관과 다중문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과학자의 배경을 가지고 과학, 신학 그리고 인문학의 대화와 통합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이번 강의에서 발표한다.

안 교수는 현재 보스톤 북부에 소재한 고든 대학(Gordon College)에 재직하며 세계기독교학과 신학(Global Christianity and Theology)을 강의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Free University of Amsterdam)과 벨기에 기독교대학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세계기독교학과 신학을 강의했다. 또한 유럽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시 시작한 유럽의 국제교회와 난민교회를 돕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한국 대기업체의 기술연구소에서 기술연구원으로 6년간 근무했다. 이후 도미하여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선교학 석사(MA) 학위를,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World Christianity(세계기독교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동창회(회장: 김정선)가 주



고든 신학대에 재직 중인 안성호 교수

관하는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에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 ([snuuane@gmail.com](mailto:snuuane@gmail.com))로 신청해 링크를 받거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https://snuuane.org>)에 가서 오른쪽 상단의 ZOOM 버튼을 누르면 된다. 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웹페이지(<https://snuuane.org/forum/>)를 참조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새해에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담아 -정관장-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09-2018 data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EVENT 2



홍삼정 240g  
3개 구입시  
홍삼정 30g 4개  
추가증정

EVENT 3

10% OFF



천특정 구입시  
홍삼정 30g 2개 증정  
또는 10% OFF  
(중복적용 불가)

EVENT 4



\$250 이상 구입시  
활기력 (10개입)  
추가증정

영업시간안내  
10:30am - 6:30pm

면역력 필수시대!  
정관장 필수세상!

행사기간: 1월 29일 ~ 2월 15일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부양책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 바이든 "부양책 크게", 민주당 예정대로 통과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부양책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400 부양수표의 지급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것에만 협상의 문을 열었다.

하원은 3일 예산안 처리절차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거의 각당 노선에 따른 투표결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에 따라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2일 처리절차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이 당노선에 따른 예산조정절차 표결까지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양책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부양책의 규모를 줄였으나 시간만 끌다가 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부양수표 타켓을 줄인다든지 하는 일부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결코 부양책의 규모나 부양수표의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빠르게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미국민주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불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1.9조달러 부양책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미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쿠파니악 대학의 부양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의 미국인중 7명이 부양책을 지지하며 특히 공화당 소속의 3분의 1은 현재 민주당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안은 지난해 말 \$600의 부양수표에 더해 \$1,4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해 \$2,000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개인 7만5천불, 부부15만불 이하의 전액을 받으며 그이상은 소득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공화당은 6천18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에서 지급금액을 부모 각 \$1,000, 부양가족 \$500로 축소하며 지급대상도 개인 4만불, 부부 8만불 이하의 경우 전액 지급하고 5만불, 10만불 이하까지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측은 소득을 개인 5만불, 부부 10만불 이하의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점차 줄여서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미국민 71%가 전액을 지급받고 17%가 축소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한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4일 자녀소득공제를 자녀당(6-17세) \$3,000로 하고 6세 이하의 경우 \$4,600로 하자는 깜작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3,000, \$3,600이었다.

hsb@bostonkorea.com

# 바이든, 공화당 상원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안 장시간 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과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일 오후 약 2시간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또는 부양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타협안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조달러의 부양책을 설명했으며 공화당의원들은 훨씬 적은 규모의 6천1백80억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제안하며 선거 당시 협치를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인 협력을 압박했다.

면담 후 수잔 콜린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부양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밤 당장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아무도 2시간의 만남에서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추가 대화에서 서로간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콜린스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콜린스 의원의 생각대로 같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이미 의회에서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위한 예산 결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1.9조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키는데 공화당 측 단 한표의 도움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다만 캠페인에서 협치와 화합을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는 일부 흠결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상,하원과 백악관을 완벽히 장악했을 때야말로 대형 코로나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당내 진보측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번째 법안에서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추후 협치에 있어서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된 의회에서 다리역할을 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공화당과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 과거의 경우처럼 무기한 끌려다닐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록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협상을 원한다는 인상을 받고 떠나기는 했지만 센사키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계획된 만남이며 부양안의 변화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면 대화는 바이든이 취임한 후 양당을 통틀어 처음으로 의회 의원들과의 만남이었다.

이번 면담 직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부양책의 빠른 통과를 위한 예산안을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7면으로 계속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자료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10명 공화당 상원의원 코로나지원 타협안 제시

## 수잔 콜린스 상원 중심으로 타협안, 6천억달러 규모 민주당, 이번주 공화당 협조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계획



바이든 대통령과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일 오후 약 2시간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또는 부양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나 구체적인 타협안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 ▶▶6면에 이어서

또한 면담 전 트윗을 통해 의회에 부양책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 너무 적은 공화당 지원안

공화당이 제안한 6,180억달러는 부양수표와 3월 중순 끝나는 실업 추가급여혜택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부양수표는 금액을 \$1400에서 \$1,000로 축소하고 부양가족은 \$500로 축소한다. 또한 지급 대상도 개인 \$50,000, 부부 \$100,000까지로 제한했다. 개인 \$40,000, 부부 \$80,000이하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개인 \$75,000, 부부 \$150,000이하 가족 모두 \$1,400을 지원해 지난 연말 \$600에 더해 \$2,000을 지급한다는 안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

또한 실업추가급여도 바이든안은 \$400씩을 9월까지 지급하는 것이지만 공화당안은 \$300씩을 6월 말로 종료된다. 이외에 자녀 세금

크레딧, 렌탈 보조, 주 및 지방정부 보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부양책은 바이든안에 비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 이어서 앞으로 어떤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유일하게 양측이 협상 가능한 부분은 부양수표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난 1월 조지아 상원 선거의 공약사항인 부양수표 \$2,000 지급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약타협을 통해 10명의 공화당 의원의 표를 끌어들이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하는 등의 힘을 뺄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조정절차의 경우 단 한표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또한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조 맨신(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의원은 1.9조달러는 너무 큰 금액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31일 6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을 발표해 바이든 대통령의 1.9조달러 부양책을 대신해 초당적인 부양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했다.

수잔 콜린스의원이 이끄는 공화당 상원 중도와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통해 “통합의 요청”에 맞춰 6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1일 월요일 구체적인 제안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1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9조달러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화당 측에서는 지난해 말 9000억달러를 포함해 이미 4조달러의 부양책을 사용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해왔다.

수잔 콜린스의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6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또는 코로나지원안은 공화당의 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 인상안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00 부양수표의 경우 지급 기준도 이전에 비해 훨씬 축소된 소득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전처럼 개인 \$75,000이하 부부 \$150,000이하가 지급기준이었다.

공화당의 \$6천억달러 안은 사실상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든 소규모 안이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화합 차원에 최소한 응답은 했다는 명분을 가지는 제안임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거양득의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자신들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신규 부양책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즈 바이든 대통령 수석 경제자문위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을 받았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속도가 가장 핵심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공화당 상원의원 중의 하나인 랫 포트만(공화, 오하이오) 상원은 부양수표의 지급기준을 개인 \$50,000 그리고 부부 \$100,000로 낮추고 \$1,400 수표 대신 \$1,000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포트만 의원은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공화당을 곤경에 넣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곤경에 집어 넣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공화당 상원들은 지난 초당적 9천억달러 부양책을 일궈낸 중도협상파 8명의 의원들이 포함됐다. 콜린스, 포트만, 그리고 캐서디 외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미트 롬니(유타), 토드 영(인디애나),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제리 모란(캔사스) 의원 외 마이크라운즈(샌디에이고), 탐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합류했다.

캐서디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초당파 의원 그룹들이 부양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6천억 달러는 정말 필요한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측의 타협안에 관심을 보일 경우 공화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공화당 측의 무반응을 지적하며 민주당 측이 예산 조정 절차 (Budget reconciliation process)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화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않고 독자적인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측은 공화당 측과 타협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을 묶어 예산조정을 통해 통과시키는 투트랙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측은 금요일 이 투트랙 진행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1.9조달러 부양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경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좌로부터) 미셸 우, 안드레아 캠벨, 김 제니

# 보스톤 시의회 보궐선거 치르지 않기로

## 김 제니 시의회 의장에게 유리, 우, 캠벨 의원엔 불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는 압도적으로 마티 월시 시장의 이임 이후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를 취소하고 정기 선거만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3일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12명 찬성 기권 1명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 보궐선거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장 선거에 3번째로 도전장을 내민 어니사 에사비조지 시의원은 자신의 캠페인과 이번 표결이 연관되어 있다며 일치감치 기권을 선언했다.

바이든 내각의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돼 다음주 초 시장직을 사임할 마티 월시 시장은 이번 시의회 청원건을 서명해 주 의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청원안은 주의회와 주

지사의 승인과 서명을 남겨두게 된다. 주정부의 승인은 요식절차여서 보스톤시는 짧은 기간안에 4번의 선거를 치르는 일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시 현장은 보스톤 현임 시장이 3월 5일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올가을 정기 시장선거가 열리는 해여서 보궐선거가 개최되면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올 여름에 치르고 다시 가을에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치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이 같은 추가 보궐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 선거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저조한 투표율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티 월시 시장이 떠나면 현재 시의회 의장인 김 제니 시의원이 시장직을 맡게 된다. 김 제니 의장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 출마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다. 제니 의장은 약 6개월 이상을 시장직에 재임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 취소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 제니 시의회 의장으로 보이며 미셸우, 안드레아 캠벨 등 일치감치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는 비교적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식당 등 사업체 수용인원 40%까지 허용

▶▶ 1면에 이어서

이외에도 입원 자, 양성확진율 등이 지수가 계속 하향세를 보여 2차 폭증세가 감소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영업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7일 평균 확진자는 1월 초에 비해 50% 감소했고 병원 입원은 35% 감소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동안 집에서만 머물게 했던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레스토랑 및 각종 운동시설을 좀더 자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감염세가 강한 상태여서 방역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존 호스트 매사추세츠 소매상협회 회장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이 같은 영업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적인 제한 조치보다는 이에 담긴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사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된다” 고 반겼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매사추세츠 주내 한인 레스토랑 및 각

종 사업체 태권도장들도 조금 더 많은 수용인원 허용에 따라 조금씩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트로폴리탄에어리어 플래닝카운슬의 마크 드레이슨 대표는 베이커 행정부의 결정에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매일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제재해제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제한을 풀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괜찮다.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물론 코로나에 지쳤고 집에만 묶여있는데 지쳤다. 이제 백신이 접종되는 것도 봤으니 사람들과 더 어울려도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 지적했다.

2월 8일부터 수용인원을 40%까지 늘릴 수 있는 사업체는 레스토랑, 게임 아케이드, 운전 및 비행학원,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박물관, 각종 소매상점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모임 최대 인원은 실내 10명, 실외 2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YOGA SONG HAYEON

# 지친 몸과 맘을 위로하는 힐링요가와 명상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은 없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난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라는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인데요, 전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안 풀리거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다운되고 우울한 날이면 가끔씩 이같은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순간에 찾는 힐링 루틴이 있나요? 최근 현재 요가원에 오지 못하는 몇몇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집에서 짧게 혼자 할 수 있는 명상과 스트레칭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각각 10분, 13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혹은 중간 쉬는 시간이 생기시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소중한 나를 위한 하루 10분 명상과 힐링 요가를 편을 찾아 함께 따라해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스트레칭은 Side Body Stretch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발을 뒤로 뻗어 사이드플랭크 변형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STEP 2. 왼발로 바닥을 지긋이 누르고 팔을 사진과 같이 뻗어 몸 옆면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POINT!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해주세요



두번째 동작은 Heart & Quad Stretch입니다.  
STEP 1. 첫번째 스트레칭이 끝나면 바로 무릎을 구부려 뒤에서 발 혹은 발목을 잡습니다.

POINT! 발을 잡는게 허리에 무리를 준다면, 발을 잡지 말고 그대로 흉당해주시면 됩니다.



STEP 2. 가슴을 앞으로 보내며 열어주고, 배를 살짝 등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허리를 보호해줍니다.

STEP 3. 앞의 두 스트레칭이 끝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세번째 동작은 Cross legged Seated Pose 입니다.

STEP 1. 두다리를 교차해 앉거나, 불편하다면 허리를 꼿꼿이 펼수 있는 어떠한 편한 자세도 좋습니다.

STEP 2. 영상 속 가이드에 따라 손을 허벅지 위에, 그리고 배위에 나중에는 가슴위에 올려놓습니다.

STEP 3. 바쁜 마음과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고 온전히 자신의 호흡 소리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물어줍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위에 알려드린 두 스트레칭 영상과 명상 영상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고,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아름다움을 위한 스트레칭과 홈트운동 영상들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운동을 하러가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 중, 온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가원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은 결코 어렵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분주한 일상과 복잡한 마음에서 잠깐 벗어나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조금더 집중하고 호흡하다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단,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매일 10분만 나와 마주해주세요. 그 결로 충분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lness Life) 대표  
유튜브 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2021 통일 아카데미 1편 조성렬 박사님 강의

# 한반도 평화와 한미협력의 과제

##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

**Topic: 한반도 종전선언 왜 필요한가?**

**When: Feb. 20th, 2021, Sat., 08:00PM (EST)**

미서부 5시, 한국시간 2월21일 일요일 아침 10시

**강사: 조성렬 박사**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9541112703>

**Meeting ID: 895 4111 2703**

**Passcode: nuac2021**



조성렬 박사

### 조성렬 박사 약력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서울대 공대 화공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일본 도쿄대학, 게이오 대학 및 중국외교학원 방문학자 역임  
 북한연구학회 회장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 <한반도비핵화 리포트>, <한반도 평화체제>,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 일부 매사추세츠 실업급여 한달 넘게 지급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실업급여가 지난해 말 이후 아직도 지급이 안돼 많은 실업자들이 렌트비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실업급여자는 지난해 12월 말 실업급여가 연장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추가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 실업부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이 업데이트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 현재 주정부는 사기 신청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업부 직원들도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전화통화가 되는 경우 곧 지급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봄 팬데믹 시작 이래 여러 컴퓨터 상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실업신청의 폭증과 오래된 컴퓨터 시스템이 겹치면서 막대한 지연이 초래됐었다. 더구나 이와중에 사기 신청자들까지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크리스틴 망가나로(33)씨는 지난해 3월 TD가든의 한 레스토랑에서 해고당했다.

12월까지의 실업급여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았다. 그러나 실업급여혜택이 종료되고 지난해 말 새로운 급여혜택 연장이 통과돼 3월 중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금껏 받지 못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2월 렌트 \$750을 낼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현재 그의 수중에는 \$9밖에 안남았다.

1일 베이커 주지사는 현재 3월 중순까지 연장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슈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 신청으로 인한 신분 확인의 문제도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많은 경우 신청자들은 재신청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실업보조부(DUA)는 현재 얼마 정도의 신청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신청자들을 돕는 페이스 북을 운영하는 제시카 프롤스는 무엇보다 실업보조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DUA직원들은 때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고 인정하거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신청자들은 자신의 차를 잃고 보험료도 내지 못하며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아만자 제닝스씨는 1월초까지 급여를 받았으나 이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월 20일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닝스씨는 “모든 사람들은 전화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렌트를 낼 수도 없고 음식도 없다. 어제는 정말 많이 울었다” 고 밝혔다.

한인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실업급여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장벽에까지 막혀 이증고를 겪고 있다. 한 한인 신청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아봐달라고 보스톤코리아에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그레이터보스턴법률서비스(GBLS)를 소개했지만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실업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보스톤코리아(617-254-4654)에 연락을 부탁드린다.



## 매사추세츠 부유층, 세금피해 뉴햄프셔, 플로리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 부유층들이 높은 소득세를 피해 플로리다나 뉴햄프셔로 피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의 파이어나어 연구소 싱크탱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추측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1월 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2백7억달러 규모의

납세자들이 타주로 옮겨갔다. 이중 플로리다는 46.5%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을 붙잡았고 뉴햄프셔도 26.1%를 확보했다.

이번 연구에서 파이어나어 연구소는 많은 이주민들의 형태가 주 소득세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경우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공화당 지지자들의 시청율을 독점하고 있는 폭스뉴스

# 폭스뉴스, 19년 연속 시청자수 1위...1월엔 CNN이 역전

### "사실 전달보다는 극단적 여론 반영하다 내림세"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19년 연속 일일 평균 시청자 순위에서 케이블뉴스 채널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스뉴스의 평균 시청자수가 24시간 기준 18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프라임타임(시청자가 가장 많은 황금시간대)에 폭스뉴스의 평균 시청자는 350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1월 들어 24시간 기준 평균 시청자수는 CNN방송이 폭스뉴스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미디어리서치는 폭스뉴스의

1월 한달 시청자수는 전년 같은달보다 19% 줄었지만 CNN방송은 153%로 2.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뉴스는 이 기간 MSNBC에도 뒤처진 3위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1월에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미 의사당 난동 사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시청자가 대거 CNN방송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보수층이 기존 매체에서 보수 성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웹사이트로 옮겨 뉴스를 소비하는 점도 폭스뉴스의 하향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CNN방송은 1월 프라임타임 시청자수도 폭스뉴스를 앞질렀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1월20일) 이후 한 주간 폭스뉴스가 CNN을 재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뉴스의 경쟁사인 CNN방송은 3일 "올해 1월은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치 뉴스의 대목이었다"라며 "이 기간 폭스뉴스는 기자를 독려하고 뉴스를 전진 배치하는 대신 더 극단적이고 한층 분노하는 여론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라고 지적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정권 교체, 의사당 난동 등을 거치면서 시청자의 뉴스 수요가 기존 미디어의 '잘난척하는' 판단보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폭스뉴스가 내림세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 미 신규 실업수당 78만건 11월 이후 최저치

### 3주 연속 감소세로 '고용한파 완화' 시사... 추가부양 목소리에도 힘실릴듯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고용 한파'가 조금씩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24~3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9천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3만3천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4주 만에 70만건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기도 하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3만건을 상당폭 밑돈 결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만건으로 전주보다 1만3천건 감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각종 실업 관련 급여를 지급받는 총 수령자 수도 50만명 줄어든 1천78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찾아온 고용한파가 누그러지

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향후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면 경제 활동 정상화에 힘입어 실업자재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재정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뉴욕 타임스(NYT)는 관측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 재정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추가 실업수당이 오는 3월 중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9월까지로 연장하고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1천400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담은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추진 중이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가하기 직전인 작년 3월 초까지만 해도 매주 21만~22만건 수준이었으나, 3월 셋째주 33만건, 넷째주 68만건으로 폭증하는 등 20주 연속 100만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령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 전기차가 제2 닷컴버블?...합병 논의만으로 3주만에 주가 3배

## 루시드모터스와 합병 논의 CCIV 주가 220% ↑ ...WSJ "계약 임박단계 아냐" 전기차와 스펙에 열광하는 투자자들에 전문가 "좋게 끝나지 않을 것"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라면 추측만으로도 가격이 폭등하는 이상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을 연상시킨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처칠 캐피털 IV(CCIV) 주가는 10달러를 살짝 웃돌다 지난 1월11일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모터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오자

마자 15달러로 50% 급등했다. 아직도 합병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이 회사 주가는 전날 32달러를 돌파해 3주를 조금 넘는 기간에 220% 이상이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CCIV가 디지털 위성방송 업체인 디렉TV에 합병을 제안했다는 보도 때와 전혀 다른 시장 반응이다. 당시 CCIV 주가는 고작 0.6% 오르는 데 그쳤다. 사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의 우회 상장 경로로 활용되는 일종의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지만, 전기차라는

요즘 증시의 최대 핫이슈를 업고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탄 모양새다. 마침 루시드모터스가 테슬라의 대항마를 자처하는 유망 전기차 회사라는 점이 최근 테슬라 폭등 현상을 경험한 투자자들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합병이 공식화하기도 전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스펙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WSJ이 지적했다. 스펙인사이드닷컴에 따르면 220% 이상 급등한 CCIV는 합병 발

표 전 역대 가장 많이 오른 스펙이 됐다. 만약 합병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에서 스펙 주가가 이렇게 점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구나 CCIV와 루시드모터스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병 계약이 임박한 단계는 아니라고 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최초 보도 이후 투자자들은 레드, 트위터, 스톡트위츠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추측

을 내놓으며 양사 합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다. 일례로 루시드모터스의 본사와 공장, CCIV 본사가 있는 새너제이-피닉스-뉴욕 노선을 경유하는 한 개인 전용기 일정을 보고 일부 투자자들은 계약에 관여한 양사 임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아니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네티즌은 직접 공항에 나가 비행기 사진까지 찍었다. 작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1.2%에 그친 테슬라 시가총액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의 합산 시총의 7배에 달하고, 아직 한 대의 전기차도 출시하지 못했거나 매출을 올리지 못한 나머지 회사들의 시총이 40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전기차 열풍은 뜨겁다.



이를 두고 WSJ은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 주식의 급등이 흔한 일이었다던 2000년 닷컴버블과 자연스레 비교된다며 전기차와 스펙에 열광하는 투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닷컴버블 당시 기술기업들의 기업 공개(IPO)를 담당했던 전직 투자은행가 데이비드 에릭슨 펜실베이니아대 선임연구원은 "매우 거품이 낀 시장"이라며 "스팩과 전기차에 열광하는 현상은 나쁘게 끝날 것이며 단지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거짓해명 · 법관탄핵 겁악재...사법부 신뢰 '흔들'

김명수 대법원장 퇴근길 공개 사과...파장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 사과까지했지만 정치권 공세 등으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사법부의 시련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한 면담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특가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는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충돌이 되었는데,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

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론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록 공개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해 온 야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은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겹치면서 사법부 내 위기가감을 키웠다.



임성근 부장지법 판사와 자신의 거짓말로 탄핵의 정당성까지 뒤흔든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 반대 102표 · 기권 3표 · 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야권에서는 "법관을 탄

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관탄핵 소추안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며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 국회, 임성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

'산케이 재판' 개입 혐의...헌재 변론 거쳐 탄핵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 반대 102표 · 기권 3표 ·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홍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5th - FEB. 11th, 2021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 GAME DAY SUPER BOWL SALE!

APPETIZERS, CHIPS, DRINKS, AND SO MUCH MORE FOR OUR FAVORITE DAY OF YEAR. 슈퍼볼을 보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각종음료, 과자 등 모든 먹거리 준비를 H 마트와 함께하세요!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p><b>Korean Pear</b>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3 CNT PKG. <b>\$9.99</b></p>	<p><b>Fuji Apple</b> 후지사과 PREMIUM QUALITY/LB <b>\$1.49</b></p>	<p><b>SOONYEOWON Tofu</b>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EN/FIRM/14-16 OZ. PKG. <b>\$1.29</b></p>	<p><b>Kabocha</b> 단호박 LB <b>\$0.99</b></p>	<p><b>ROSHNI</b> 로시니 땅콩 56 OZ. PKG. <b>\$4.99</b></p>
<p><b>Sumo Mandarin</b> 한라봉 BOX <b>\$19.99</b></p>	<p><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p>	<p><b>Oriental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LB <b>\$1.99</b></p>	<p><b>Idaho Potato</b> 아이다호 감자 LB <b>\$0.79</b></p>	<p><b>Hot House Cucumber</b> 핫 하우스 오이 EA. <b>\$0.99</b></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U.S.D.A. CHOICE</b> Fresh Beef Tenderloin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8.99</b></p>	<p><b>U.S.D.A. CHOICE</b> Fresh Beef Heel Meat 생 사태 LB <b>\$7.99</b></p>
<p><b>U.S.D.A. CHOICE</b>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b>\$7.99</b></p>	<p>Fresh Pork CT Butt Chunk 생 수육용 돼지목살 LB <b>\$5.99</b></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 없는 생 닭 사태 LB <b>\$1.99</b></p>	<p>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갈비 LA STYLE/LB <b>\$12.99</b></p>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Frozen Head-on Shrimp 머리 새우 LB <b>\$4.99</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Head-on Froze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냉동 자연산 홍새우 10-20'S/LB <b>\$5.99</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Roast Dried Fish Fillet 특대왕 쥐포 8.81 OZ./PKG. <b>\$9.99</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Euljiro Dried Cod 을지로 노가리 7.76 OZ./PKG. <b>\$9.99</b></p>
<p>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TONGTONGBAY Frozen 3 in 1 Squid, Small Octopus, and Octopus Mix 1 LB./PKG. 통통배 오징어 (오징어 주꾸미 낙지) <b>\$10.99</b></p>	<p><b>HOT SALE</b>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b>\$6.99</b></p>

###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b>\$12.99</b></p>	<p>H MART SMART CARD ONLY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b>\$5.99</b></p>
<p>H MART SMART CARD ONLY KWANCHUN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ORIGINAL/ GREEN LAVER 0.71 OZ. X 10EA. /PKG. <b>\$9.99</b></p>	<p>H MART SMART CARD ONLY CHUNGJUNGONE O'FOOD Gochujang 청정원 오푸드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BROWN RICE RED PEPPER PASTE 6.6 LB <b>\$14.99</b></p>

<p>KYONG GI No. 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b>\$29.99</b></p>	<p>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 갈비/불고기 양념 KALBI/BULGOGI 2.11 LB <b>\$4.99</b></p>	<p>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OZ. <b>\$6.99</b></p>	<p>THREE CRAB BRAND Fish Sauce (Việt Hương)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OZ. <b>\$4.99</b></p>	<p>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유동 골뱅이 통조림 14.1 OZ. <b>\$6.99</b></p>
<p>HORMEL FOODS Spam 스팸 25% LESS SODIUM/12 OZ. <b>\$2.99</b></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골드) ASIAN STYLE STARCH NOODLES 1.5 LB <b>\$2.99</b></p>	<p>SHIRAKIKU Sanukiya Udon 시라키쿠 사누끼야 우동 8.8 O.Z X 5PCS/PKG. <b>\$3.99</b></p>	<p>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FRIED/KIMCHI/VEGETABLE/2.65 LB <b>\$5.99</b></p>	<p>KIKENI Hotdogs/Corndogs 키켄이 핫도그 POTATO-CHEESE/MOZZARELLA/CRISPY MOZZARELLA 14.1 OZ. <b>\$5.99</b></p>
<p>CALBEE Fruga Fruit &amp; Granola 갈비 후루그라 ORIGINAL 17 OZ. <b>\$5.99</b></p>	<p>K TOWN Sesame &amp; Coconut Cracker 케이타운 고소애 11.29 OZ. <b>\$2.99</b></p>	<p>Korean 2-layer Cotton Mask 한국산 방한 2겹 성인용 면마스크 WHITE/BLACK MIX EA. <del>\$4.99</del> <b>\$3.49</b></p>	<p>KOTO Glass Tea Kettle with Stainless Steel Infuser 고토 유리 티망 주전자 (+스테인리스 인퓨저) 1000 mL /EA. <del>\$12.99</del> <b>\$8.99</b></p>	<p>HELLO HOME Men's/ Women's Polar Bear Slipper 헬로홈 남/여성용 북극곰 실내화 MEN - GREY/COFFEE MIX(XL/XXL MIX) WOMEN - DARK PINK/RED MIX(M/L MIX) PAIR <del>\$8.99</del> <b>\$5.99</b></p>

오늘 만든 생 떡국떡

### FRESH SLICED RICE CAKES

Made Today. Gone Tomorrow.

10 times chewier, 100% natural ingredients, produced daily

10배 이상 톡톡한 식감, 100% 천연재료, 매일 생산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 제 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Susan Ahn  
339.224.1512  
Newton Branch Manager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릭 신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 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Micki Choi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주 희 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황 수 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 FEATURED LISTINGS



### ● 뉴튼 센터 렌트

최고의 위치!!  
네일샵, 미용실, 리테일 및 오피스 용도로 적합

Asking 월 \$3000(렌트)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 LISTINGS



### ● 세탁소 건물 + 비지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sking \$200,000



###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급매



###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지니스 투자

Asking \$320,000



###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 우리 아빠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PFML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답은 : [mass.gov/pfml](http://mass.gov/pfml)

위의 웹사이트에서 유급 가족 및 병가 (PFML)에 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2021 개교 46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21학년도 봄학기 등록부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2세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을학기 일정: 2021.2.20 - 2021.6.5
  - ⇒ 신입생 소집(온라인)- 2월 12일-14일 (각 과정별로 인터뷰/평가 진행)
-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 병아리(지난 9월 2.5세 이상) 기초1 & 2과정 → 선착순 등록
- ☐ 학교주소(대면수업):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C/o 오크힐 중학교)
- ☐ 학교주소(온라인 수업): 각 학급별 온라인 교실에서 수업 진행
- ☐ 등록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재학생) 2월 10일까지(신입생)
-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과정별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음
  - (1) 오전 학급(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작문교육(1-5반) 음악교육•사물놀이•종이접기 교실•신체학습 및 전통/문화교육
  - (2) 오후 프로그램(2-4pm): 읽기 학급•이해하기 학급•숙제 도우미 학급
- ☐ 수업료: 마감일 이후 등록: Late Fee \$20
  - (1) 오전 학급: \$340/1인 \*\$620/2 \*\$770/3인
  - (2) 병아리반: \$180 (3) 성인반: \$230
  -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1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 문의 & 교사지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카카오톡 ID: KSNEUSA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2세 교육에 동참해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동포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 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꼭 알려주십시오.  
 \* 부문: 유아 교육•한글•음악•미술•역사/문화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20 가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1) \_\_\_\_\_ (2) \_\_\_\_\_ (3)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 여 (Female) \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20년 가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 (성명) \_\_\_\_\_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병아리반: \$180, 성인반: \$230)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생•편입생 온라인 소집 (인터뷰 & 반편성) 일정: 등록서류가 접수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때문에 개인주택소유의 꿈을 접기도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 해드립니다.

20년차 모기지 전문

개인별 맞춤 융자

낮은 이자율

리파이낸싱/캐쉬아웃

후회 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 시켜드립니다.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 바로 연락 주세요.

617-733-5014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 컬럼리스트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뉴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재필도  
양미아  
손영애  
이원철  
Sue Calarese



###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J6ZdT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 간판 및 사인

초이스  
간판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명품전

KOREAN REGIONAL TASTE FROM THE PAST.  
HEALTHY HARVEST AND SEASIDE PRODUCTS  
FROM JEOLLANAM-DO ARE HERE.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 고향의 풍경을 담은 정겨운 맛 녹색의 땅  
전라남도에서 온 건강한 농수산 식품들을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IT'S THE HOMETOWN FLAVOR OF JEOLLANAM-DO.  
ENJOY THE FINEST FROM KOREA WITH OUR SPECIAL  
JEOLLANAM-DO MARKETPLACE. VISIT TODAY!

EVENT DATE  
FEB. 5<sup>TH</sup> -  
FEB. 18<sup>TH</sup>,  
2021



YEONGSAN SKATE Sliced Skate  
영산홍어 숙성홍어회 1.1 LB

\$ 16.99 / \$ 25.99

YEONG  
GWANG  
Barley  
Gulbi  
Gift Set  
영광  
보리굴비  
선물세트  
BOX



\$ 145.99



MIGA FOOD Tea Dried Greens  
순꽃 건나물, 건약채류  
1.76-8.4 OZ.

\$ 3.49부터 ~

GUNGANGL  
JIKINEUN  
SARAMDUL  
Mogwa/  
Maesil  
Jayeonon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자연엔 매실/모과 24.34 FL.OZ.

\$ 10.99



SAMYOUNG MACHAN GIM Seasoned  
Seaweed 삼영 맛찬김 돌김

\$ 1.99 0.11 OZ.  
X 8 EA.  
/PKG.



AOLDA Red Ginseng &/Pear &  
Balloon Flower/Apple Juice  
AOLDA 헬로 아이 홍삼/  
배도라지/달콤사과 착즙

\$ 7.99 10 EA.  
/BOX

MIGA FOOD  
Glasswort  
Anchovy  
Sauce  
미가식품  
자연의 지혜  
함초  
멸치액젓  
30.43 FL.OZ.



\$ 9.99



AHNBOKJA HANGWA Rice  
Candy 2.82-8.81 OZ.  
안복자한과 쌀강정/쌀엿강정

\$ 3.99 / \$ 5.99



GAVO FARMS Tea 가보팜스 꿀차  
CITRON HONEY/JUJUBE/GINGER - 2.2 LB

\$ 5.99 - \$ 7.99

| 주최 |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 "배 3개 1만8천원 · 대파 7천500원...설 장보기 막막"

야채 · 과일 · 달걀 가격 '굉충'... "차례상 간소화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홍유담 기자 =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 다음주 장을 봐야 하는데 그때가 더 걱정이예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 가면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만난 60대 주부 고모 씨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상차림을 걱정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어서다.

고 씨는 이날 마트를 한 바퀴 돌고도 카트에 어묵, 두부, 돼지고기, 빵 등 할인 행사 중인 상품 몇 가지만 담은 채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이마트에서 대과는 한봉에 7천490원으로 1주일 사이에 1천500원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배나 올랐다.

애호박은 1개 3천290원에 판매됐다. 애호박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으로 많이 찾는 돼지호박은 개당 3천490원으로 더 비싼 기현상이 빚어졌다.

배 3입 팩 1만8천500원, 사과 3입 팩 1만6천 원 등 수입과일을 제외하면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다.

이마트 관계자는 "배와 사과 3입 팩 상품은 작년 추석보다 가격이 20%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채소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마트 한쪽에서 1~2일 전 야채를

30% 할인 가격에 내놓자 여러 명이 몰려들어 상태가 나은 제품을 고르는 데 여념이 없었다.

한 주부는 "언론에서 계란값 올랐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보다 야채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양파(1.8kg)가 한 달 전보다 2천 원 오른 5천980원에 팔리고 있었다. 대과는 5천980원으로 한 달 새 2배, 계란 한 판(30알)은 7천480원으로 1천500원 뛰었다.

친구들과 마트를 찾은 직장인 류모(27) 씨는 "야채랑 고기만 좀 샀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0.6% 올랐지만 농·축·수산물은 10.0% 급등했다. 사과(45.5%), 파(76.9%), 고춧가루(34.4%), 양파(60.3%), 달걀(15.2%), 쌀(12.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마다 장보기 비용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일원동에 사는 유효정(41) 씨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사기 위해 여러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봤다.

유 씨는 "장보기 비용을 아끼려고 1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는 "차라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할 때를 이용해 가격이 저렴한 밀키트를 사는 게 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상차림용 장보기를 간소화하거나 완제품을 사는 소비자들도 있다.

주부 김모(61) 씨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식구들이 별로 모이지 않아서 간단히 상차림을 하려는데

도 비용이 적지 않게 나올 것 같다"며 "특히 과일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상에 올릴 과일 종류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성모(51) 씨는 홈쇼핑에서 설음식으로 먹을 냉동전 세트를 샀다.

최근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서다. 성 씨는 다른 설음식도 반찬가게에서 조금씩만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19) 주식 투자의 선택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테슬라 주식 투자로 자산이 \$12 million으로 불어난 한 투자자가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다. 최근 미시간에서 \$1 billion 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 테슬라 창업자는 재산이 \$185 billion으로 아마존 창업자를 누르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다. 이처럼 주식 몰방, 복권, 창업,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된다.

이런 소식에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누구나 상상해 본다. 그러나 테슬라 주식이 \$12 million으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한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테슬라 회사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투자해야 하고, 파산한다는 소문과 2020년 단 하루에 주식이 \$1.3 million이나 폭락하는 상황도 잘 견뎌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창업, 복권, 주식 대박을 멀리하고 생업에 열중하며 자그마한 돈이라

도 분산투자도 폭넓게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투자를 얼마나 잘했는지 무용담을 남에게 말할 수 없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주식투자 성공하는 비법을 말할 수 없다. 큰 부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말할 수 없고 본인이 주식투자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말할 수도 없다.

단기간에 큰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좋은 점은 있다. 수시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자연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한국 여행도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다. 주식시장 변화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 장기간이란 시간이 걸리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쪽박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실패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 뜨거운 종목에 투자하지 않아서 대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투자로 본인은 물론 가족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작년 3월 이후 투자한 사람은 큰돈을 벌었다. 연봉과 비슷하게 혹은 훨씬 더 많이 불어난 사람도 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경험하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는 '주식투자는 희망이며 심지어는 신세계를 경험' 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순식간에 대박 난 사람이 있지만, 카지노 경영인은 조금도 격정하지 않는다. 대박 난 사람이 다시 와서 결국에는 돈을 전부 잃을 때까지 도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의 자산도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도 천천히 부를 쌓아가고 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대박을 기대하며 모험을 한다. 어떤 부자는 충분한 돈이기에 많은 위험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부자는 돈이 충분히 있기에 모험을 택하지 않는다. 본인이 위험성을 인식하며 투자한다면 그 사람의 투자 방식이 옳다. 그러나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누군가가 손쉽게 대박이 터졌다고 그 방식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는 삶(Life)의 한 부분일 것이다. 투자가 인생에 얼마만큼 비중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가끔 큰 안목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9세 풍월주(風月主) 흠순공(欽純公(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받들어 장군 유신 등과 함께 정예 군사 5만을 이끌고 나갔다. 가을 7월 황산벌에 이르러 백제 장군 계백을 만나 싸움이 불리하여지자 흠순이 아들 반굴을 불러 말하였다..." 이하 생략

이어지는 내용은 아들 반굴에게 명하여 적진에 뛰어들게 하였다. 반굴은 단신으로 나아가 수많은 백제군의 목을 베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에 김품일 장군 역시 아들 관창에게 같은 명령을 하였다. 용맹한 화랑 관창도 몇 차례 적진에 돌진하여 백제군의 목을 베니 그제야 신라군의 사기가 충천하여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태종대왕 7년 경신년은 660년이다.

위에 인용한 김흠순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는 화랑이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단 한 문장인 '진평왕 때 화랑이 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지만, 화랑세기를 보면 김흠순은 화랑의 수장인 19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 그는 629년에 풍월주에 올라 4년간 화랑도를 이끌다가 633년에 부제인 예원공에게 물려주었다(김태식은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165쪽)' 에서 김흠순이 631년에 풍월주의 위에 올랐다고 기록했는데, 화랑세기 19세 풍월주 흠순공조에 보면, 김흠순이 낭비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를 친 낭비성 전투는 629년에

있었다. 어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김서현이 진평왕 재위시 화랑이 되어 진평왕 말년에 풍월주가 되었으며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 위치에 있었다. 즉 그가 화랑을 지낸 기록이 삼국사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위의 짧은 인용문 내용에 '문무왕이 그를 총재에 올렸다' 는 대목이다. 총재가 무슨 벼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음 문장에서 '모두 여진 재상이라 칭하였다' 라고 한 내용에서 아마 김흠순도 상대등을 지낸 것으로 추측해 본다.

김흠순이 상대등을 지냈다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본다.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났다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 흠순의 출생 기록은 없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형 유신보다 세살 아래인 흠순은 598년에 태어나서 83세까지 장수하고 문무왕 재위 20년인 680년 2월에 죽었다. 그런데 죽을 당시의 직위가 기록에 없다. 다만 그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수많은 전쟁과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나당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장군이었고, 불세출의 대영걸인 김유신의 동생이며, 문무왕의 어머니인 문희(문명왕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정비)의 친오빠이며, 80세를 넘기며 천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그가 죽기 전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삼국사기를 통해 680년 신라에서 일어난 일 중에, "봄 2월에 이찬 김군관(金軍官

에게 벼슬을 내려 상대등으로 삼았다" 는 기록이 있다. 김군관은 23세 풍월주를 지냈다. 자세한 그의 삶은 23세 풍월주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김흠순이 680년 2월에 죽었고, 김군관이 동년 동월에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역사적 사실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대 상대등(上大等)의 명단이다. 문무왕 재위시 두 명의 상대등 기록이 나오는데, 김유신이 660년 정월에서 673년까지 재임했고, 김군관은 680년 2월에서 681년 8월로 기록되어 있다(나무키와 위키백과에는 김군관의 취임 년도가 679으로 삼국사기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제7권, 신라본기 제7권, 문무왕 20년 춘2월)에는 "이십년(680년) 봄 2월 拜伊찬(伊) 金軍官爲上大等" 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무왕의 재위 20년은 680년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상대등 김유신과 김군관 사이 7~8년 동안에 재임한 상대등의 기록이 없고, 또한 김군관의 상대등 임명이 김흠순이 죽은 동년 동월에 있었으며, 총재와 재상이라는 직명이 그의 '열전' 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 흠순이 상대등을 지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나무키, 위키백과

#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기생충' 계보 잇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3일(현지시간) 제78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을 발표하면서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나리'는 덴마크의 '어너더 라운드', 프랑스-과테말라 합작의 '라 로로나', 이탈리아의 '라이프 어헤드', 미국-프랑스 합작의 '투 오브 어스' 등 다른 후보자들과 수상을 놓고 다투게 됐다.

그러나 여우조연상 등 후보 지명이 기대됐던 다른 부문에서는 후보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 정(정이사)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 아칸소주(州)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워킹메이커'에 출연해 유명해진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과 한예리, 윤여정 등이 출연해 연기 앙상블을 선보였다.

'미나리'는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공개되며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되는 미국영화연구소(AFI) 선정 '2020 AFI 어워즈'에서 10대 영화에 올랐고, 112년 역사의 전미비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과 각본상을 받는 등 수십 편의 상을 탔다.

베라이어티와 할리우드리포터 등 미국 연예매체들은 '미나리'를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연기상 후보로 꼽기도 했다.

이런 수상 경력에 힘입어 '미나리'는 골든글로브 후보작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됐다. 다만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던 소식 보도가 나오면서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영화는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도 논쟁이 일었다.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 플랜B가 제작했다.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은 이달 28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으로,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골든글로브상은 아카데미상(오스카)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약 한 달 먼저 열리면서 골든글로브는 오스카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을 받을 경우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최



근에는 두 상의 수상작들이 겹치지 않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로브상 외국어영

화상을 탄 바 있다.

'미나리'는 3월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sisyphe@yna.co.kr

2월 7일 - 2월 1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첫 발을 내딛게 되는</b></p> <p>● 운수: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이니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적어질 것입니다. ● 애정: 싱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7, 12일 주의.</p>	<p><b>소띠   생각을 단순하게</b></p> <p>● 운수: 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 금전: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애정: 본의 아니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7, 9일 길일. 7, 13일 주의.</p>	<p><b>범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b></p> <p>● 운수: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가까이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서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금전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애정: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7, 12일 길일. 8, 10일 주의.</p>
<p><b>토끼띠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b></p> <p>● 운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금전: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매상이 증가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 애정: 이렇게 좋을 것을 왜 잔뜩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b>용띠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b></p> <p>● 운수: 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 금전: 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지급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애정: 무엇이든지 어색하게 하면 차라리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에 봐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1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뱀띠   유리한 변수가</b></p> <p>● 운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 금전: 무경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기겠습니다. ● 애정: 부부의 마음이 화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b>말띠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b></p> <p>● 운수: 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잘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b>양띠   빨리 대화로 풀어야</b></p> <p>● 운수: 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꼭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각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b>원숭이띠   하루하루가 새롭고</b></p> <p>● 운수: 좋은 사람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 금전: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옵니다. ● 애정: 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b>닭띠   길게 내다보고</b></p> <p>● 운수: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온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면 그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해도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b>개띠   처음부터 잘해야</b></p> <p>● 운수: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 금전: 조금만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냐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편안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p><b>돼지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b></p> <p>● 운수: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 애정: 영동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밍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마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8, 13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승리호' 배우들 "한국 최초 우주영화 자랑스러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오는 5일 일반에 공개되는 '승리호'는 2092년을 배경으로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파괴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영화에서 '태호'역을 맡은 송중기는 "한국 최초의 우주 영화로는 국가대표 작품이란 점에서 감독님의 부담이 컸을 것 같다"며 "(배우로서는) 부담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점이 컸다"고 말했다.

승리호를 이끄는 '장 선장'을 연기한 김태리 역시 "우주 영화가 한국에서 나오면 어떨지를 잘 보여준 것 같다. 영화가 한국적이다"라며 "우리 영화가 (한국의 우주 영화 제작) 시작 지점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촬영했다는 점이

뿌듯하다. 승리호 이후에 나올 SF(공상과학) 영화들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관사 '타이거 박'과 로봇 '업동이'를 각각 연기한 진선규와 유해진도 "운동선수로 치면 전국체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느낌", "우리나라 최초의 SF 영화인데 너무 근사하게 나왔다. 자랑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승리호'는 구상부터 제작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우주 공간을 스크린에 구현해내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로봇이 움직이는 모션 캡처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

조성희 감독은 "10년 전 우연히 우주 쓰레기에 대해 듣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며 "우주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이 존재하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기름때를 묻히며 살아가는 상황을 그렸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에 닿는 빛의 느낌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지 고민했다"며 "속도감에서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우주선이 작고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느리게 움직이면 박력이 없을 수 있어 이 균형감을 맞추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 신동엽-이민정-김종민, tvN 새 예능 '업글인간' 출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vN은 새 예능 프로그램 '업글인간'(가제)에 신동엽, 배우 이민정, 김종민, 단딘, 오마이걸 승희가 출연한다고 3일 밝혔다.

'업글인간'은 출연자들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크고 작은 불편함을 마주하고 도전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의 개인 콤플렉스 극복, 불

편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 등이 담긴다. MBC TV '무한도전' 등을 연출한 손창우 PD가 연출을 맡는다.

손 PD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약해진 새해 다짐을 되새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한다"고 전했다.

3월 첫 방송.

batto52@yna.co.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매사추세츠한인회 최초 여성 이사장 선출되다

지난 1월 23일 한인회 임시 이사회에서 여성 최초로 제41대 이사장으로 장인숙씨가 선출되었다. 직능단체장(당연직) 이사들 4명이 사임을 하였고, 새로 선출된 이사를 포함 총 인원의 이사는 25명이다. 제41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최초 여성 한인회장(서영애)에 이어 장인숙 이사장까지 2021년도는 여성의 시대로 막이 올려지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창조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떨쳐버릴 수 없는 개인적인 직감이다. '여성의 힘'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작은 것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이사장 선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장인숙 이사장은 "제41대 한인회가 새롭게 기획한 사업계획에 따라 한인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인회와 함께 (찾아가는 한인회, 찾아오는 한인회)로 잘 운영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사회에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

서 봉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장인숙 이사장은 한인회와 한인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인숙 이사장은 1979년 겨울에 매사추세츠로 가족과 함께 도미하여 Andover, MA에서 남편 정명철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 모두 개신교인이며 신앙이 남다른 어른들이셨다. 또한, 햇수로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 및 부장, 임원회 위원장, 평신도 대표, 목회협조위원장, 연합속장, 여성교회장 등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며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래도록 곁에서 봐 왔지만, 처음과 끝이 확실한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현재는 Academic Consulting LLC CEO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특별히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30년이 넘도록 북부보스턴 한국 학교 교사 및 교장직을 역임하였고,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국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커다란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장, 선출이사, 교육간사, 재무 등으로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스턴 평통자문회의 교육분과위원장으로 '골든벨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이 지역에서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구는 작지만, 매사에 신중하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며 어린아이들로부터 연세드신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력과 너그러움과 품성과 지혜를 지녔으며, 특히 '의리와 정' 역시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녀의 장점일 것이다. 장인숙 이사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배려심'과 '이타심' 그리고 '성실함'과 '헌신'이다.

무엇보다도 미국문화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병원 방문 등과 라이드를 드리고 손수 모시고 다니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녀는 늘 성실하게 봉사한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손수 장학금도 마련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며, 최근에는 지체장애인 부모님을 둔 25명의 자녀들에게 일대일 무료 과외를 해주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소리 나는 '똑순이다.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조용히 무엇인가 이뤄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에게는 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일까. 가끔은 궁금해진다. 아마도 그것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연마해온 '내공'이지 않을까 싶다. 제41대 매사추세츠한인회의 꿈틀거림이 느껴진다. 그것은 이렇게 든든한 한인 이사회 25명의 이사들과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는 장 이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천천히 평온하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꾸었다.  
(꽃의 패러디, 오규원)

보스톤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의 설교중이었다. 낯선 이름이 들렸는데 도무지 생소했다. 서서평徐舒平 간호 선교사. 그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오랫동안 헌신하다가 영양실조와 지병으로 이른 나이에 돌아갔다고도 했다. 그는 엄마같은 선교사였다고도 했다.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주연 배우의 모습에서 놀랐다. 선교사의 모습과 빼어 닮았기 때문이다. 같은 독일 출신이라 했는데, 어찌 그

렇게 닮을 수가 있을 것인가. 문득 모나리자를 떠올렸다면 너무 나간 건가. 얇게 웃는 모습이 환상적인 게다. 여배우가 짝퉁이란 말은 아니다.

영화 제목이 인상적이다. 천천히 평온하게. 그의 한국이름에서 끌어냈는데, 그의 삶이 그러했다. 다시 들여다 보는 선교사의 사진속 얇은 미소는 과연 평온해 보인다.

봄은 가까웠다만 아직 봄은 아니다. 가짜 봄일테니 짝퉁이며 사춘(春)이라 해야겠다. 올봄은 천천히 오려나?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시편 131:2)

많은 말들이 새로 생겼다. 짝퉁이란 말도 그중 하나이다. 내게는 새로운 말이고, 낯선 단어였다. 내 젊은 시절엔 없던 말이었다. 네이버에 의하면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란다. 짝퉁은 점잖은 말은 아닌듯 하다.

절품絶品 모나리자도 모방작이 있다. 진품 모나리자는 루브르에 있다만, 모방작은 스페인에 있다던가. 진품과 모조작품은 고친 부분까지 똑같다고 했다. 전후사

정은 이렇다. 모조품은 다빈치의 제자의 것인데, 다빈치가 작업하는 중에 옆에서 따라 그렸다는 거다. 작품을 손질하며 고칠적에도 같이 고쳤단다. 사진으로 볼적엔 그제 그거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는 없는 듯 하다. 그림엔 문외한인 내내에도 그러하다. 이런 것도 짝퉁이라 하는가.

어디 회화작품 뿐이라. 시에도 있다. 저명한 시 꽃을 패러디 한 시

작詩作이다. 제목도 아예 꽃의 패러디라 했다. 오규원 시인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왕오천축국전 2

##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2010년 12월 14일 한국에 들어와 2011년 3월 17일까지 60cm만 전시하게 되었다. 왕오천축국전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① 대여기간은 3개월, ② 60cm 이상 전시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내걸고 전시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3권으로 편찬되었으나 현존본은 약본이며 앞뒤 부분이 유실되어 내용 중에 천축까지 항해하는 과정이 빠져있다.

해초의 기행은 법현의 불국기처럼 문학적 소양도 부족하고 현장의 대당 서역기처럼 자세한 서술도 없지만 8세기 전반 천축국의 지리, 풍속, 역사, 종교, 생활풍습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여행기는 동천축국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나체로 산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유는 옷을 만들기 위해 동식물을 살상하지 않으려고 그리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축을 잡거나 고기를 파는 것을 볼 수 없다. 천축 전역에서는 살생이 없고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오로지 우유와 버터뿐이다. 낙타, 노새, 당나귀, 돼지 등의 가축을 식용으로 기르지 않고, 양과 말은 숫자가 적어 오직 왕만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기후가 따뜻하여 온갖 풀이 자라고 눈과 서리를 볼 수 없다. 쌀, 보리, 떡을 먹으며 간장은 없고 소금을 먹는다.

왕이나 벼슬아치, 부자들은 전포로 만든 옷을 입는데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사람들은 한가지 옷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반조각만 몸에 걸친다. 길에는 도적이 많다. 그러나 물건을 빼고는 그대로 놓아주며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는 아니한다고 한다.

천축국에서는 목에 칼을 씌우고 매를 때리거나 형벌을 주는 감옥이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 데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 해초는 왜 인도에 가려고 했을까?

무릇 승려라면 불법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해초는 "급기야 마하보디사(大覺寺)를 보고는 내 소원에 맞는 지라 너무 기뻐했다"라고 그의 뜻을 오언시(五言詩)로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깨달음이 멀다고 걱정 않는데  
어찌 녹야원이 그리 멀다 하리오  
가파른 길 험하다고 근심할 뿐  
업풍이 몰아쳐도 개의치 않네  
여덟탑 보기란 정말 어려운데  
오랜 세월 겪으며 거의 타버렸으니  
어찌 보려는 소원이 이루어 지겠는가  
(하지만) 바로 이 아침 내 눈으로 보았노라

간단하게 해설하면, 붓다는 마하보디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250km 떨어진 녹야원(사슴 공원)으로 5바구니를

보러 가려는 것이다. 8개 탑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마하보디사 탑을 보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 부처님의 생애

싯달타는 직접 미래의 순례자들에게 태어날 곳, 깨달을 곳, 설법할 곳, 죽을 곳 네 장소를 미리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네 팔의 테라이(Terai) 지방의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마야데비(Maya Devi) 부인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친정 데브하라 콜리 성으로 가던 중, 무우수 아래서 나무가시를 잡고 진통하여 부처를 낳았다고 한다.

싯달타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계를 외쳤다. 이 말은 "하늘위 하늘아래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라는 뜻이며 이어 부처는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내 중생들을 위해 기필코 그치게 하리라"며 대구를 마무리 지었다.

싯달타가 사방으로 일곱 발자국을 걸은 것은 우주 만물 윤회의 길인 육도(六道)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열반의 길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그가 부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싯달타의 아버지 정반왕은 40세가 넘어서 야비로소 아들을 얻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7일만에 세상을 떠났고 정반왕은 부인의 동생과 재혼했다. 싯달타는 후처가 된 이모에 의해 양육되었다. 16세(19세?)에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으나 29세때 출가하였다. 많은 스승을 모시고 수도하였으나 누구도 태자가 알고 싶어했던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자 육신을 학대함으로써 탈할 수 있다는 극한의 수련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6년의 고행으로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몸은 너무 쇠약해져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그는 육체적 고통을 참아온 수행방법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다. 마침 양떼를 먹이려고 나온 수자타라는 처녀가 그에게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공양하였다. 싯달타는 이 우유죽이 천상의 이슬과 같은 감로였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싯달타와 함께 구도를 위한 수행이라면 어떤 고행도 망설이지 않던 5명의 수행자들은 수자타가 제공하는 우유죽을 먹는 붓대를 지켜보며 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탄식하고는 녹야원으로 떠나갔다. 붓다는 "나의 몸이 무너져 살과 뼈가 마르고 썩어 그 몸이 무너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일어나지 않으리라"며 계속 정진하였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정진한지 7일째 되던 날 새벽,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나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위대한 진리였다. 이 깨달음을 우리는 정각(正覺, Abhiambodhi)이라고 한다.

그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번뇌를 스스로 끊을 수 있었고



(좌) 부다가야, 부처가 깨달은 곳 (우) 룸비니의 아쇼카 석주



사르나트의 아쇼카 석주의 기둥머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천년고목 보리수



다맥 스투파(Dhamekh Stupa)

무한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5세였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부근에서 49일을 명상하며 보냈다고 한다. 이때부터 싯달타는 스스로를 붓다(Buddha), 즉 "깨달은 자"로 불렀다.

금강보좌는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로 앞에는 보리수 한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서쪽에는 세존이 고행을 끝내고 목욕을 한 연못이 남아 있다. 세존 생전에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깨달음을 나무, 즉 보리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다가야에서 이 나무의 높이는 수백척에 달했으나 그동안 몇 차례나 벌채되는 수난을

겪었다. 높이 10m에 달하는 현재의 보리수는 원래 보리수의 4대 손자에 해당된다.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시원에 있는 스리마하보리수 묘목을 가져다 심었는데 스리랑카 보리수는 아쇼카 왕이 불교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딸 상가미타비구니를 파견할 때(BC 288) 함께 보냈던 묘목이라고 한다.

녹야원(사르나트)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에서 25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었다. 부처님은 고행을 함께 한 5명의 도반을 만나려고 먼 길을 떠났고 이들을 만나 최초의 설법을 하게 되었다. 그가 설법을 시작한 이유는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함께 고행했던 5명 도반과의 인연 때문이었다고 한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갑상선 치료의 탑클래스를 향하여



이 번주 휴람에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갑상선 내분비내과 정윤재교수를 만나 중앙대학교병원 갑상선 치료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자 합니다.

내분비내과는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장기의 기능 이상을 다룬다. 갑상선질환이나 당뇨, 골다공질환인 골다공증 등이 주요 진료 분야다. 내분비내과 중에서도 정윤재 교수는 국내에서 몇 안되는 갑상선 분야 전문의다.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들을 만나며, 끊임없는 연구로 갑상선질환의 더 나은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정윤재 교수는 중앙대병원 갑상선암클리닉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자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의료진**

갑상선은 다른 장기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정윤재 교수가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에도 국내 갑상선 전문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환자의 몸의 형태나 생김새를 관찰하

고, 빠른 치료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윤재 교수는 갑상선 치료에 매력을 느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비해 갑상선은 치료 반응이 빨라 1~2달 정도면 좋아집니다. 갑상선암도 다른 암에 비해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예후가 좋은 편이

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환경호르몬과 공해,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더욱이 갑상선암은 여성암 유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갑상선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건강검진으로 발견해 내원한다. 몇 년 전에는 갑상선암의 과잉진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갑상선암 치료 역시 당연히 하계 외과적 절제술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최근엔 갑상선 유두암이면서 크기가 작고 임파선 전이 없이 갑상선 내에만 국한된 경우,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추적 관찰하며 지켜보기도 한다. “갑상선암은 호르몬 계통 암이기 때문에 느리게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분열이 빠르지 않아서 다른 장기나 임파선에 전이가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이 다른 암종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다고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정윤재 교수가 기억 속 환자 이야기를 꺼냈다. “척추통증으로 용산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원격전이를 일으키기도 하는 갑상선 여포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갑상선에서 척추뼈로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고,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뇌막에까지 전이가 되었

습니다. 환자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해보지만, 좋지 않은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을 알 길이 없었는데, 2년 뒤 외래에서 제게 알은체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 분이 그 환자분 성함이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아직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살아서 안부를 전해주시는 환자 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직도 그분 성함이 잊히지 않습니다.”

**‘갑상선 치료는 중앙대병원이 최고’ 라는 자부심**

내분비내과는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와 달리 시술이 없어 다소 정적인 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내 최초 윈스톱서비스를 시행한 중앙대병원 갑상선암클리닉의 외래 진료 사이클은 그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당일 외래 진료시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해 환자가 검사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덜었다. 윈스톱시스템하에서 내분비내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가 암센터 내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있어,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와 수술 스케줄을 잡는다. 중앙대병원의 갑상선 암클리닉의 윈스톱시스템을 자랑하며 앞으

로도 갑상선 치료의 탑클래스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정윤재 교수. 그는 갑상선암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는다.

“중앙대병원의 갑상선 전문의로서 바람이 있다면, 환자들에게 갑상선 치료는 중앙대병원이 잘 본다라는 경험을 선물해드리는데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갑상선·내분비외과 의사의

수술 실력을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의사라면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기에, 동료의 가족이 앓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자 한다. 최고의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오

늘도 꾸준한 정진을 약속하는 그의 눈빛이 빛난다

“갑상선 치료의 탑클래스를 향하여”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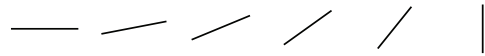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 Compass Services

###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1년의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는  
한해, 웃음꽃 넘치는 한해,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2월 compass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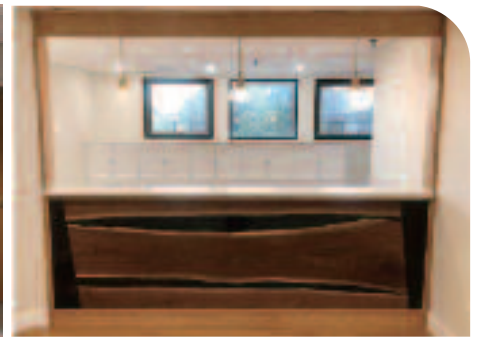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 마음대로 골라본다

# \$24<sup>99</sup>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전상품 1년 약정



KBS MBC SBS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달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